

# 산정호수 가족호텔 10억 적자 손실

## 이병욱 시의원 시정질문에서 대책마련 촉구

포천시의회는 7일과 8일 포천시 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포천시정 대한 시정질문으로 포천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비롯한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용방안, 국도 43호선 교통소통 대책, 포천공항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2단계 국가 균형발전안에 대한 대책, 불법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로 도시미관 정비 등 6건이다. 또 부시장 소관 4건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2건, 경제행정국장 소관 1건 등 모두 13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중 포천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포천시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2년간 10억80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7일 계속된 포천시의회 제37회 임시회에서 이병욱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병욱 의원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2004년12월 착공계획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포천시 재산 10억8000만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임대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와 건물

을 영어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윤국 시장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포천시가 수익사업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비 지원 또는 민간투자 유치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1988년에 건립되어 기부채납된 가족호텔은 건물과 휴게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병욱 시의원은 포천시가 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면서 2년간 10억8000만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욱 의원은 가족호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보증금문에서 롯데관광개발(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재 임대한다면 정상적인 호텔운영 가능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포천휴양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12월중에 구체적인 협약을 6개월(경기도, 포천시, 경기관광공사, 롯데관광개발, 레드우드, 삼성건설)이 참여하는 6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간건설사업과 관련한 보증금문에서 롯데관광개발(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재 임대한다면 정상적인 호텔운영 가능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산정호수 가족호텔 임대는 금년중 공개경쟁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 임대계약을 체결해 2008년도 1월중 임차인으로 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5월경에는 가족호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이렇다할만한 결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국도 43호선 분산 도로개설사업 추진

### 김종천 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혀



연말까지 일부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의회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시장은 국도 43호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축적고개에서부터 포천천변을 이용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박 시장은 우선 시급한 구간인 송우웨딩홀-하송우리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추진하고 송우-무봉간 도로와 축적고개-무봉(광릉수 우회도로)간 도로 3.54km를 2011년까지 완료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도 43호선 대체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성인삼조합-가신면사무소간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차-동고간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해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 박 시장은 "2007년 8월 27일 국제회의실에서 용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역이 완료되면 세부계획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국도 43호선 확장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2008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지역 항공유치 기본계획 용역

### 정종근 시의원 구체화된 마스터플랜 없다 지적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통해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포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비행장을 이용한 첨단 항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지역공항 유치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29일 자체 기본 검토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6년 5월까지 타당성연구 용역을 거쳐 2006년도 서울지방항공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 2007년 5월10일 지역공항유치 기본 계획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008년 1/4분기까지 기본용역에 의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항공관련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천시는 경기도와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체코 루노비스시 항공회사와 양해각서 체결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항유치사업과 병행하여 항공인프라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정종근 시의원(사진)은 제37회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지역항공 유치사업이 아직까지 마스터 플랜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용역 수행시 주민여론 수렴과 피해방지 대책의 구체화 등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했으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현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공항 유치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증가하는 항공기 수요를 감안해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및

### 취재파일

### 지방의원 의정비심의 허와 실

# 의정비 심사 문제점 개선 필요

## 인구와 면적대비 상한선과 하한선 마련해야



### 하승환 본지 취재국장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인상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는 과도하게 인상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과다인상 과정,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 위원명단의 공개여부,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절차,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등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자부의 입장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꼴이다. 왜냐하면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시킨 장본인은 행정자치부다. 그리고 유급제 시행할 때 지방의원 연봉을 부당채상급 혹은 서기관급 등에 준하는 의정비를 산정 할 것이라는 말을 흘렸다.

그런데 행자부는 확실한 기준안이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것도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둔 7개월 전인 2005년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었다. 그 당시 확실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 결정을 놓고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다.

지방의원을 역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의정비 책정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렇다할만한 의견개진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는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추천해 위원장으로 규정했다.

월정수당을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행정자치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로 위촉된 인사는 대부부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이 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을 감안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 의정이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당연히 지방의회 의장으로 부터 부탁을 받고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정비를 결정토록 한 것은 다분히 행정자치부가 유급제 도입 초기 국민들의 여론반발을 피해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처음 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 이때 경기도내 31개 시군 평균 의정비는 3천92만원이다. 최고 높은 3천799만원에서부터 최저 2천250만원까지 다양하게 의정비가 결정됐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의정비를 결정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최고와 최저 금액이 1천540만원이라는 격차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2005년 당시 최저 금액으로 결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높은 금액을 받은 지방의회에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정비를 결정할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년 대비 50% 이상을 인상한 것은 동두천시로 83.2%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이천시 74.1%, 여주군 66.7%, 가평군 54.8%, 안성시 51.6%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전년 대비 10%대 인상을 자치단체는 파주시가 9.3%, 광주시 12%, 고양시 14.4%, 과천시 16.7%, 군포시 18.3% 등의 순이다.

그러나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두천시의 경우 기존 2천292만원에서 4천200만원, 이천시 2천520만원에서 4천387만원, 여주군 2천250만원에서 3천750만원, 가평군 2천520만원에서 3천900만원, 안성시 2천316만원에서 3천510만원 등이다.

총액 대비 소폭인상한 파주시의 경우 기존 3천120만원에서 3천411만원, 광주시 3천432만원에서 3천843만원, 고양시 3천716만원에서 4천252만원, 과천시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 군포시 3천348만원에서 3천9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5.7%를 인상한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내 최고 금액으로 4천777만원이고 4천만원 이상인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했다.

이같은 모순점이 발견되었는데 인상을만 가지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자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자부는 의정비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마련한 것이 오히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귀사의 제품 포장에는 **EPS** 산업이 함께 합니다!

# 고품질! 저단가!

- **진공성형** : 각종 문구류 케이스, 식품용기, 농자재류, 전자부품트레이, 각종 브리스타용 덮개 등
- **계도바시** : 오디오·비디오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학습교재 등
- **고주파가공** : 브리스타접착, 크레파스, 각종 필기류 등 경·연질 접착
- **건축자재** : 가설 방음벽, 건축내외장재-에버우드/멤브월드

주소 :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237-3  
전화 : 031)543-8338 H.P. 011-796-4811  
www.epsko.co.kr

# 암 검진 받으셨나요?

□ 건강검진 및 암검진 안내

1. 검진대상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40세 이상(1967.12.31이전 출생자)세대원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피부양자: 만40세 이상(1967.12.31이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매년)/사무직(2년에 1회, 07년도 대상자)
    - \* 전년도 검진대상자중 미수검자도 검진가능(공단문의)
2. 검진항목
  - 건강검진: 1차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
  - 2차검진 ⇒ 폐결핵, 당노질환 등 8개 질환 28항목
  - 암검진: 건강검진대상자중 희망자에 대해 자궁경부암(30세 이상), 위암·유방암(40세 이상), 대장암(50세 이상),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검사 실시
3. 검진절차 : 검진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지참후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 \* 건강검진확인서가 없으신 분은 전화로 신청하세요! ☎ 544-3417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안내

생애주기 중 중년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입니다.

1. 대상자는?
  - 만 40세(67년생)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만 66세(41년생) 건강보험대상자
2. 건강진단 항목은?
  - 1, 2차 항목 통합? 조정 및 골밀도검사, 생활습관검사, 상담의사 사후상담 등
  - 암검진 : 건강검진대상자중 희망자에 대해 자궁경부암(30세 이상), 위암·유방암(40세 이상), 대장암(50세 이상),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검사 실시
3. 비용 부담은?
  - 전액 공단 및 국가 부담으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 건강정보 종합사이트 안내 : <http://hi.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문의전화 ☎ 031-544-3417, 전국공통 1577-1000)